

“ 현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충고 ”

■ 이종윤 원로목사

현대 교회는 그 형태가 크던 작던, 능력이 있던 없던 세상으로부터 심한 억압과 박해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로부터도 큰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과 역할은 예나 지금이나 반드시 가시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나단 선지자도 없다. 타락한 백성들의 거짓 신앙을 책망할 엘리야도 보이지 않는다. 악하고 구부러진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목을 내놓고 외친 세례요한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진리 되신 예수께로 끌고 간 마틴 루터도 없다. 조국을 위해 기도한 존 낙스도 보이지 않는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다. 소아시아 지방의 라오디게아교회를 향해 주님은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고 진단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의 한국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 눈이 먼 상태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볼 수 없는 무지를 알지 못했다. 찬지 더운지도 모른다. 윤리적, 교리적 부패를 자행하면서도 그것을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 자기 기만에 빠져 벌거벗은 수치도 모른다.

이런 교회를 향해 주님의 처방전이 나왔다. 그것은 내게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수치를 가리우게 하며 보게 하라신다. 불로 연단한 금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사되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와서 사라 하신다. 라오디게아처럼 현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사야 한다. 한국교회의 빈곤은 물질적인 것이나 영향력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결여다.

신학교에서 성경 과목이 부족하다. 어려운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에 시간을 보내느니 빨리 설교 잘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대중심리를 이해하는 학문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논리학, 심리학, 사회학, 상담학이 성경 과목보다 많이 배정되는 오늘의 신학교 커리큘럼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하나님 말씀에 굶주렸던 라오디게아교회의 비참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오직 말씀에 붙잡혔다. 종교개혁자들도 오직 말씀만(Sola Scriptura)을 강조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신다. 우리 주님은 빛의 옷을 입으셨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그의 아내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옳은 행실의 옷이 없어 벌거벗은 수치를 당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지지 않고 깨끗하고 빛난 옷을 입은 자가 누구인가? 인간에게 최고의 선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루터는 외쳤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의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소경이다. 하나님의 뜻도 영광도 보지 못한다.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당신은 영원을 보고 있는가? 성령의 은혜가 없이 영원을 볼 수 없다. 이런 이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신다. 성령의 은혜가 없는 자는 현재도 미래 구원도 볼 수도 받을 수도 없다. 루터는 공로신학을 철저히 배격한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표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실의 옷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현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주님의 충고를 겸손히 받아야 한다.

-한국장로신문 [제 1355호] 2013년 2월 9일 발채-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Ki Chan Yoo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1 Cor 13:9-13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Rev. Euichang Kim
* Offering Prayer	Congregation
Sermon	“When Perfection Comes” Rev. Euichang Kim
* Hymn	286 [Come into my heart, blessed Jesus]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역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선교사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성, 양재성)이한주(카자흐스탄), 이경연,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강해성, 우상식)김경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해성)러시아, 허창범(현미산)일본, 김낙형-오정혜(캐나다),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복(인도), 스프로토(브루이), 필리몬, 프란시또, 수레리, 수비쓰, 알로롱, 비사누(브노), 보디소프, 린롱, 수르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만(홍성일)말리위,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미디가(스카르)

	<p>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p> <p>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p> <p>SEOUL PRESBYTERIAN CHURCH</p> <p>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p> <p>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p> <p>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p>
--	---

“ 옴의 신앙 ”

■ 옴 23:8-12

올해는 502주년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구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며 이단경계 주일이기도 합니다. 옴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신앙을 지키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엄청난 고난으로부터 해방을 받으면서 회복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누구도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세상적인 고난뿐 아니라 믿음이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옴기서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1. 하나님을 경외한 옴

성경은 옴을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옴의 믿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옴의 고난은 사탄의 시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옴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옴을 시험해 보라고 하며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옴을 향한 사탄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옴의 가족들은 칭찬하는 사람들에 의해 죽거나 태풍으로 집이 무너짐으로 압사를 당하면서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옴은 가경과 재산이 풍지박살이 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인 사고를 빼앗아 가는 사탄의 계획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게 되지만, 옴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치 아니하며,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2.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옴

옴은 고통과 아픔만 느끼지 않고, 자신의 삶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옴은 삶 가운데 찾아온 고통에 연연해하지 않았고, 시련에 몰두하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억울해 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고난의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옴에게 세 친구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옴을 향해 옴은 실패와 고난을 당하고서도 뻔뻔하고 교만하다고 하면서 옴을 비난했습니다. 아내도 친구도 떠나간 옴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옴 23:8-12). 세상의 친구들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잊지 않으시고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옴은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후일 천국에 갔을 때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하거나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모든 것이 만족하기 때문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체현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맺는 말

하나님은 서울교회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랜 시간 분쟁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신앙을 잃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기까지 오신 서울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십니다. 옴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이전보다 배나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서울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 권영평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오치열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오광환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인 도 자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48: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3(2).....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34(시 81)...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67(31)...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 12:9—21...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상한 갈매를 꺾지 않는 주님”...	전재홍 목사
* 찬 송 Hymn	394(449)...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99:1-2 인 도 자
찬 송	31(46) 다 함 께
기 도	김용기 집사
성 경	창 13:1-13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	설 교 자
* 찬 송	322(357)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이안순 권사
성 경	빌 4:10-14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자족의 비결”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김양언 박수강 김복희2

설 교 장석남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이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 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욘 23:12)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 교구위원회 11월 모임(교구장, 부교구장, 간사) / 3일(주) 3부 예배 후 101호(웨스트민스터홀)
- 마리아 전도회 월례회 / 5일(화) 오전 11시 50분 뱃스 도곡점
- 정기 당회 / 6일(수) 수요일예배 후 104호

◆ 알 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의료 상담 / 이번 주 상담은 김봉배(통증), 박동우(영상의학)입니다. (의료상담 오전 10시-11시)
다음 주 상담은 공민호(신경외과), 이종욱(진검)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전화 예약 010-2728-5939
-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 전화 예약 010-2376-3892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장 레 1. 故 유운순 집사(11교구) / 28일(월) 별세, 30일(수) 발인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856명	204명	192명	1,252명	131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10/27)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0월27일	헌 금	54,016,800	
	말씀봉사비		20,410,000
	찬양대사례,운영비		14,062,000
	급 여		33,084,000
	교회학교사례, 운영비		8,575,900
	특별예배비		1,606,970
	교구운영비		180,000
	선 교 비		32,440,000
	구 제 비		400,000
	비전2020		5,880,000
	출 판 비		250,000
	지원교회		3,000,000
	인 건 비		6,122,600
	복리후생비		80,900
	통 신 비		117,350
	수도광열비		4,520
	차량유지비		583,000
	도시인쇄비		540,000
	소모품비		544,670
	수선유지비		244,600
	잡 비		500,000
	식당운영비		1,210,700
	합 계	54,016,800	129,837,210